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를 이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이며,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성경에는 ‘Bless The Lord(하나님을 축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바라크’라는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아기스 성읍에서 빠져 나온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곤고한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 합니다. 여기에서 ‘곤고한 자들’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성경에 ‘겸손한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해 본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내 가족, 내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중추절에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446, 559, 563장 (중 택1)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그리스도인이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은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겸소하게 드러야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2019

중추절 감사예배



 명성교회

예 배 순 서		
---------	--	--

중추절 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목 도 시 106: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 송 304, 430, 589장 (중 택1) 다 같 이

성 시 교 독 다 같 이

인도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이다

회 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인도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회 중: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도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회 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다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 아 멘 -

신 앙 고 백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살았지만, 바쁜 생활 속에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몰랐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줄 몰랐으며,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보며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올 한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의 단비를 거두지 아니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열매가 무르익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늘 섬김의 자세를 통하여, 나보다 남을 더욱 더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와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 멘 -

성 경 봉 독 시 34:1-6인 도 자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 처음 감사를 이어가게 하소서 인 도 자

시편 34편은 감사시입니다. 시편 34편의 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아기스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과 전쟁 중에 있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합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내쫓게 되고,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감사가 끊어지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감사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까?